

한국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분석(Ⅱ)

—1920년대부터 1970년대의 동아·조선일보를 중심으로—

—The Content Analysis of Childrearing Articles in the Korea Central Daily Newspapers : Focusing on Dong-a and Cho-seun ilbo from 1920's to 1970's.—

강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시간강사 신 양 재
영동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전임강사 김 영 주

Dept. of Home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

Lecturer : Shin, Yang Jai

Dept. of Women's Education, Youngdong Junior College

Full-Time Instructor : Kim Young Joo

〈 목 차 〉

I. 서 론
II. 내용분석

III.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deas about childrearing represented in the Korean central daily newspapers.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is the content analysis and the data are articles of Dong-a ilbo and Cho-seun ilbo from 1920's to 1970's.

It is found that the contents of childrearing articles were concerned on childrearing practices conformable with social change for industrial capitalization during twentieth century of Korea. These articles dealt with problems of practices in the pregnancy-delivery, nurturing, teaching, disciplining and interfacing between home and institutional education of school. Especially, these articles put great emphasis on preservation of health and hygiene of child, interfacing between child and school education, and meeting matrial needs of child. Also they made the issue of adult-centered manners in the child-rearing.

I. 서론

1. 연구 문제

아동 양육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각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은 간과할 수 없는데, 즉 개인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사회 문화가 자기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관습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아동을 키우며 또 키워진다고 한다(유안진, 1991). 아리에스(Ariès; 1962)나 헌트(Hunt; 1970)로 대표되는 사회역사적 관점에서는 아동 양육의 정의와 특성이 문화적 가치와 실제 역사적 시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Bigner, 1979). 현대 사회에서는 아동을 가능성의 존재, 독립된 인격을 갖춘 인격체이며 독자적인 존재로 본다. 이는 아동을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진 가능성의 존재로 보아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며,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인격을 지녔고 아동답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미성년으로서가 아니라 아동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자기 나름의 고유한 독자성을 갖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로서 아동기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안진, 1992). 사회역사적 입장에서 이와 같은 현대의 아동기에 관한 견해는 자본주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즉 자본주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는 아동 양육, 학교 교육, 일터에 보내는 방식의 변화와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Ariès; 1962; Kessen, 1979).

아리에스는 아동기는 생물학적인 연령기가 아닌 근대 사회의 산물인, 즉 역사 과정 속에서 '발견'된 연령기로 본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공장, 학교, 가족이라는 세가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자본주의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며 그것은 공장이라는 제도의 장치에서 수행되는데, 공장 투입 전에 노동을 재생산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근대 가족과 학교는 매우 적합한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본은 원천적으로는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는 없으나 가족은 이를 재생산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근대적인 가족의 주된 관심사는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교육이다. 아동은 연

약한 존재라는 관념이 일반화되고, 가족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염려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이시재, 1988).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아동기를 특정화하는 독자적인 제도, 가치, 특징, 특권이 형성된 것이다. 즉 가족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걱정해야 하며, 전(前)자본주의 농업 사회에서 관행이 되어 왔던 아동 노동이 일반적으로 허물어지고, 그것을 대신하여 보통 교육 및 의무 교육이 제도화 되고 성인이 되기까지 부양 대상자, 보호 대상으로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다(문소정, 1991).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는 사회 변화는 전자본주의 농업 사회에서의 아동 양육에 영향을 주어 양육상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으리라 보는데 이러한 논의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사회역사적 상황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 양육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신문 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소수의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있고 다양하며, 또한 시의적(時宜的)이고 발행이 계속된다는 특징(차배근, 1991)이 있으므로 신문 기사의 분석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관한 인식 변화의 추이를 규명하기가 용이하리라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동아·조선일보는 전국 규모의 중앙지이며, 1920년 창간 이후로 정간이나 일제 말기의 폐간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계속 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진행된 시기에 관한 모습을 비교적 꾸준히 담고 있어 아동 양육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가늠하는데 유용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 근대 사회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래 일본을 매개로 한 서구의 자본주의 문화가 유입되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되어가는 시기를 기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이기백, 1976). 그러나 한편으로 신용하(1967)는 근대 사회의 시대 구분을 봉건적 토지 소유의 해체와 산업 자본의 확립의 기준에 근거해 볼 때 일본 식민지 통

치기 동안에 이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은 일본의 식민 정책에 의하여 무력적으로 저지되어 어느 한 가지도 충족 시키지 못하였으며, 봉건 사회의 부분적 해체는 진행되었으나 그 완전한 해체나 근대 산업 자본주의의 성립은 8.15 해방 후의 농지 개혁과 공업화의 진전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해 실제 일제 식민 통치기 동안의 가정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소수이다. 1920-30년대 농민 가족에 관한 한 연구(문소정, 1991)를 보면 식민지적 자본주의화에 의해 생산이 사회화됨에 따라 가족의 생산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고, 이러한 가족 경제 구조의 변화는 농가내의 성별 부업에 영향을 끼쳐 남성을 중심으로 임노동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가족 단위의 생존과 생활을 유지해 가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되었고,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노동력, 출산력, 성은 가장이 가족의 생계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아동양육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고, 이 시기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921년 방정환에 의해 어린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장차 잘 살게 되는 길이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이듬해에는 어린이날을 정하고 이에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만들게 하라는 선언이 발표되었다(조용만 송민호 박병채, 1982). 이 소년 운동을 통해 근대적 아동관이 발달되었다고 보기도 하나(주정일, 1979), 이러한 논의는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추론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선행 연구(신양재 김영주, 1992)에서 1920-30년대의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중심적인 양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나, 이는 신학문적인 입장에 선 지식층이 중심이 되어 계몽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으로 일반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후속 연구에서는 근대 자본주의 형성 시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식민통치기 중 일부인 1920-30년대에서 해방 이후의 기간까지로 분석 대상 시기를 확대하여 사회역사적 변화과정 속에서 아동양육의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기를 셋으로 구분하여 아동 양육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자본주의 전개가 자립적인 것이 아닌 식민지 수탈로서의 보다 높은 초과 이윤 실현을 위한 일본 독점 자본의 요구에 의한 식민지적 자본주의화 단계인(박현채, 1985) 1920년에서 1940년까지가 한 시기이며, 1945년 해방부터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0년까지가 두번째 시기로 정치적으로는 미군정에서 1, 2공화국으로 이어지며, 분단체제가 성립되었고, 미국의 소비적 자본주의 문화가 대중에 확산된 시기로서 경제적으로는 원조의 형식으로 미국 자본주의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시기이며(장봉규, 1991), 세번째 시기는 1961년에서 1980년까지로 한국 역사에 있어서 자본주의화가 가장 확연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된 시기(조항제, 1991)로서 정치적으로는 3, 4공화국으로 경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산업화가 급속히 되고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산업 노동자로 도시에 몰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교통 통신 시설이 확장되어 한국 사회도 산업화 사회, 다시 말하면 산업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입각한 산업 구조로의 사회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이강수, 1980)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화와 그에 따른 제반 부문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이행되는 각 전개 단계에 아동 양육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 나라의 아동 양육 변화 과정 뿐만 아니라 현재의 아동 양육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로서 의의가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동아·조선일보에 실린 아동 관련 기사의 내용 분

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문에서 다룬 아동 양육 관련 기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기사에서 제시된 아동 양육의 역할 주체는 어떠한가.

셋째, 아동 양육 관련 기사의 내용은 1920-30년대, 1940-50년대, 1960-70년대의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네째, 기사에 제시된 아동 양육의 역할 주체는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다섯째, 신문 기사는 아동 양육상 문제로서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가.

2. 연구 방법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신문에 나타난 아동 양육의 내용 규명을 위해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I)의 후속 연구로서 연구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석 대상 선정, 분석 유목 선정, 분석 단위 설정, 자료 처리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 (I)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1) 분석 대상 선정 : 본 연구에서는 동아·조선이 창간된 1920년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간된 1940년 8월 10일 까지를 1920-30년대로 하여 분석의 제1시기로, 해방후 1945년 11월 23일 조선일보가 복간되고, 같은 해 12월 1일에 동아일보가 복간된 후부터 1960년 12월 말일까지를 1940-50년대로 하여 분석의 제2시기로, 1961년부터 1980년 12월 말일까지를 1960-70년대로 하여 분석의 제3시기로 삼았다. 각 기간에 동아·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에서 사실보도 기사와 광고를 제외한 내용 중에서 가정란을 중심으로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한 아동양육기사는 총 3,870건으로, 이것은 육아수기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2) 분석 유목 선정 : 본 연구에서는 베렐슨(Berelson, 1952)이 제시한 분석 유목 중에 주제 분석과 행

위차 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주제 분석 유목을 위하여 Nye(1976), Gilbert & Hanson(1983), 유안진(1992)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고, 이에 임신·출산 유목, 보육 유목, 훈육 유목, 교육 유목, 상담 유목, 사회제도 연계 유목, 일반 유목의 7개의 주제 분류 유목을 선정하였다. 각 주제 분석 유목의 개념정의와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 유목은 태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출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임신에서 출생까지의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으로는 태교영역, 유전영역, 임신 중 관리 영역, 출산 및 산후관리 영역, 출산조절 영역 등이다. 보육 유목은 신체적·심리적 기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의한다. 하위영역에는 물리적 욕구 충족 영역, 건강·위생 관리 영역, 정서적 욕구 충족 영역, 발육 일반 영역이 있다. 교육 유목은 아동의 제반 측면 즉 신체적, 정서·사회적, 지적 발달을 위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신체적 영역, 지적 영역, 정서·사회적 영역, 놀이지도 영역, 특수아 교육 영역이 있다. 훈육 유목은 아동에게 개인, 가족,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규칙, 규범, 가치 등을 내면화시켜 정신적 행동적 습관을 형성시키는 의도적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기본생활습관형성 영역, 사회규범 내면화 영역, 훈육 방법이 있다. 상담 유목은 자녀의 발달 과정 중 결정적 시기에 야기되는 문제나 갈등에 관해 조언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에는 사춘기 적응 영역, 이성교제 영역, 진로 영역이 있다. 사회 제도 연계 유목은 아동을 일반 사회제도가나 시설과 연결시키는 교량적 활동을 의미하며 하위 영역으로는 학교 연계 영역, 취학전 교육 연계 영역, 대중 매체 연계 영역이 있다. 일반유목은 여러 유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다룬 기사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행위차 분석은 메시지에서 제시된 어떤 행위의 행위자를 알아 보고자 하는 방법(차배근, 1979)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양육 관련 기사에서 양육의 행위 주체로서 어떤 대상을 지목하고 있는가를 보았다. 범주 설정 요구의 충족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귀납적으로 범주를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하

다(김경동, 1986)고 보아, 임신 출산 유목을 제외한 전체 기사를 먼저 검토하여 행위 주체의 유목을 추출, 설정한 연후에 이로써 분석을 하였다. 신문 기사에서는 가정, 어머니, 아버지, 부모, 부형이 언급되었고, 그밖에 앞의 유목에 속하지 않은 대상, 예를 들면 어른, 할머니 등과 같은 대상이 언급된 경우와 그밖에 행위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기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가정', '어머니', '아버지', '부모', '부형', '기타', '명시 안됨' 등으로 행위 주체를 분류한 연후에, 결과 분석에서는 행위 주체가 명시 안됨 경우는 제외하였다.

3) 분석단위 및 자료처리 : 분석 단위는 연구 (Ⅰ) 과 마찬가지로 기사(item)이며 1920-30년대는 2,157건, 1940-50년대는 322건, 1960-70년대는 1,391건으로 총 3,870건이 분석되었다.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Ⅱ. 아동 양육 관련 기사의 내용 분석

1. 전체 개관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동아·조선일보에 실린 아동 양육 관련 기사를 주제 유목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총 3,870건 중에서 보육 주제는 1,451건으로 전체의 37.5%를 나타내어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그 다음으로 사회 연계 주제 유목이 697건(18.0%), 임신 출산 주제 유목이 566건(14.6%), 교육 주제 유목이 518건(13.4%), 훈육 주제 유목이 400건(10.3%), 일반 유목이 170건(4.4%), 상담 주제 유목이 68건(1.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아동 양육에 있어서 보육이 다른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위 영역의 분포를 보면 보육 주제의 하위 영역인 건강·위생 관리 영역은 822건으로 단일 하위 영역으로서는 월등히 높은 빈도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 연계 영역도 557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보육의 물리적 충족 영역은 382건으로 단일 하위 영역으로는 많은 숫자들이

다. 이들은 전체 기사의 45.5%로 반수에 가깝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이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 관리에 힘쓰며 동시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자녀의 교육적 측면을 해결하는 일이 아동 양육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육 행위의 주체에 관한 분포를 보면(<표 2> 참조), 가장 많이 나타난 대상은 어머니로 분석된 기사의 43.9%이며(1,142건), 부형이 5.5%(142건), 아버지는 0.5%(12건)의 순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어머니가 아동 양육의 역할 수행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머니가 행위 주체로 지목되는 비율이 1920-30년대에 48.1%(695건), 1940-50년대에 49.8%(100건), 1960-70년대에 36.3%(347건)으로 1960-7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비율이 낮아져서, 이 시기에는 아동 양육 역할 수행이 어머니의 일만이 아닌 부모의 일로서(44.8%) 지목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신문에 나타난 아동 양육 내용은 임신 출산에서 보육, 교육, 훈육, 상담, 사회 연계등의 여러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위생 관리와 물리적 필요 충족 등의 보육 측면과 학교 제도에 의한 교육 측면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동 양육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아동 양육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대상은 어머니로서 가정 내의 성별 분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리에스(Ariès; 1962), 헌트(Hunt; 1970), 케센(Kessen; 1979)의 논의와 일치하고 있다.

2. 주제 유목별 내용 분석

1) 임신 출산 주제 유목

임신 출산 주제 유목내 하위 영역의 분포를 보면(<표 1> 참조), 태교는 21건(3.7%), 유전은 21건(3.7%), 임신 일반 및 임신중 관리는 266건(47.0%), 출산 및 산후 조리는 143건(25.3%), 출산 조절은 115건(20.3%)이다. 이들 가운데 임신 일반 및 임신중 관리의 내용이 가장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다.

각 시기별로 보면(<표 3> 참조) 1920-30년대와 마

〈표 1〉 아동 양육 관련 기사 주제 유목 및 하위 영역별 빈도

주제 유목	하 위 영 역		계 (%)**
	영 역	빈 도(%)*	
임 신 출 산	태 교	21 (3.7)	566(14.6)
	유 전	21 (3.7)	
	임신 일반 및 임신중 관리	266(47.0)	
	출산 및 산후 조리	143(25.3)	
	출산 조절	115(20.3)	
보 육	물리적 필요 충족	382(26.3)	1,451(37.5)
	건강 위생 관리	822(56.7)	
	정서적 보호	125 (8.6)	
	발육 일반	122 (8.4)	
교 육	신체 발달	39 (7.5)	518(13.4)
	정서·사회적 발달	168(32.4)	
	지적 발달	141(27.2)	
	특수아 지도	50 (9.7)	
	놀이 지도	120(23.2)	
훈 육	기본 생활 습관 형성	150(37.5)	400(10.3)
	사회 규범 내면화	146(36.5)	
	훈육 방법	104(26.0)	
상 담	사춘기 변화 적용	21(30.9)	68 (1.8)
	이성 교제	17(25.0)	
	진 로	30(44.1)	
사 회 연 계	학교 연계	557(79.9)	697(18.0)
	취학전 교육 연계	71(10.2)	
	대중 매체 연계	69 (9.9)	
일 반			170 (4.4)
총 계			3,870 (100)

* 유목내 하위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 전체에서 각 유목이 차지하는 비율

〈표 2〉 행위 주체 유목별 빈도*

시기구분 유목	가 정	어머니	아버지	부 모	부 형	기 타	계
1920-30년대 (%)**	217 (15.0)	695 (48.1)	2 (0.1)	379 (26.2)	91 (6.3)	61 (4.2)	1,445 (100)
1940-50년대 (%)**	28 (13.9)	100 (49.8)	4 (2.0)	54 (26.9)	12 (6.0)	3 (1.5)	201 (100)
1960-70년대 (%)**	70 (7.3)	347 (36.3)	6 (0.6)	428 (44.8)	39 (4.1)	65 (6.8)	955 (100)
총 계 (%)***	315 (12.1)	1,142 (43.9)	12 (0.5)	861 (33.1)	142 (5.5)	129 (5.0)	2,601 (100)

* 행위 주체가 명시 안된 기사 703건은 제외

** 시기별 각 행위 주체 유목의 백분율

*** 전체에서 각 행위 주체 유목의 백분율

찬가지로(신양재·김영주, 1992) 40-50년대에는 임신 출산 주제 유목에서 다루어진 전체 71건 중에 임신중 관리가 29건(40.8), 산후 관리가 24건(33.8)으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졌다. 이 두 영역은 20-30년대와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의학적 지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0-70년대의 특징은 출산 조절 영역이 전체 148건 중 73건(49.3)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비하여 임신중 관리가 39건(26.3), 산후 관리가 29건(19.6)으로 다른 두 시기에 비교해 보면 임신·출산에 관한 의학적 지식 보급은 약화되었고, 이에 비해 출산 조절 영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출산 조절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이 가족 계획에 관한 기사로서 가족 계획에 관한 필요, 의의 등의 일반 내용을 다룬 기사와 가족 계획의 방법으로서 피임 방법 소개, 임신 증절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1960-70년대에 들어서 출산 조절에 관한 내용이

〈표 3〉 시기 구분에 따른 주제 유목별 하위 영역 빈도

주제	유목	분석 유목별 하위 영역					
		태교	유전	임신중 관리	산후조리	출산조절	계
임신 출산	20-30년대	15(4.8)	15(4.3)	198(57.1)	90(25.9)	29(8.4)	347
	40-50년대	2(2.8)	3(4.2)	29(40.8)	24(33.8)	13(18.3)	71
	60-70년대	4(2.7)	3(2.0)	39(26.3)	29(19.6)	73(49.3)	148
보육		물리적 필요충족	건강 위생	정서적 필요충족	발육일반		계
	20-30년대	216(24.6)	518(57.9)	66(7.4)	94(10.5)		89
	40-50년대	36(36.7)	53(54.1)	7(4.7)	2(2.0)		98
60-70년대	130(28.3)	251(54.7)	52(11.3)	26(5.7)		459	
교육		신체발달	정서 사회적 발달	지적발달	특수아 지도	놀이지도	계
	20-30년대	32(13.0)	73(29.7)	64(26.0)	15(6.1)	59(25.2)	243
	40-50년대	0	20(38.4)	19(36.5)	5(9.6)	8(15.4)	52
60-70년대	7(3.1)	75(33.6)	58(26.0)	30(13.4)	53(23.7)	223	
훈육		기본생활습관	사회규범내면화	훈육방법			계
	20-30년대	87(36.7)	85(35.9)	65(27.4)			237
	40-50년대	5(18.5)	16(59.3)	6(22.2)			27
60-70년대	58(41.9)	45(33.1)	33(24.3)			136	
상담		적용	연애(이성교제)	진로			계
	20-30년대	3(6.8)	13(29.5)	28(63.6)			44
	40-50년대	5(71.4)	2(28.6)	0			7
60-70년대	13(76.5)	2(11.8)	2(11.8)			17	
사회 연계		대중매체	학교	취학전교육			계
	20-30년대	3(1.0)	281(86.7)	40(12.3)			324
	40-50년대	4(8.2)	45(91.8)	0			49
60-70년대	62(19.1)	231(71.3)	31(9.6)			324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경제적으로는 국토 분단에 따른 경제 구조의 불균형과 전쟁으로 인한 생산 시설의 파괴로 빈곤이 극심하여 경제 개발 정책의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었고,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구 성장 억제 정책이 필요했으며(권태환 김두섭, 1990), 1961년 가족 계획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마찰이 심했던 점은 전통적인 자녀관, 유교적 도덕관념에 의한 산아 제한과 낙태에 대한 죄악시 등으로, 이에 가족계획사업에서는 한국 가족의 유교적인 전통과 많은 자손이 더 큰 행복을 가져 온다는 신념을 회색시키는 것, 피임약이 더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성윤리를 현실적으로 보다 서구화 시키는데 주력하였다고 한다(김광웅 박용치, 1978). 이러한 가족 계획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홍보 사업은 신문 기사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고, 이것이 1960-70년대에 임신·출산 주제 유목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다루어지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로서 실시된 이러한 가족 계획은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아 자녀 출산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자녀가 많으면 양육과 교육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크므로 자녀를 적게 두고 이를 잘 키우겠다는 관념이 정착하게 하였다(공세권, 1987)고 한다. 한편으로 가족 계획 사업은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인 동원 확대를 꾀했으며, 개인과 가족의 개별적인 생활 계획이 국가 발전의 대의명분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박명선·신경아, 1991)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여튼 가족 계획 사업이 추진된 1960-70년대에 출산률의 현격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인구 통계 분석(공세권, 1987)을 보면 경제 개발 전인 1920-30년대나 1940-50년대에는 6.25 동안기인 5.6만을 제외하고는 출산율은 6.3-6.0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1960-70년대에는 4.9(1964년), 3.6(1974년)으로 출산율이 낮아졌다.

한편 1940-50년대 신문에는 당시의 아동 양육에 관하여 사회의 불안정과 더불어 대가족 제도 속에서

시부모, 남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섭생을 등한시 하여 영양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임신부의 문제와, 6.25 직후의 생활 불안정, 사회 생활 무질서로 임신 중절이 함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60-70년대에는 가정에서의 분만에 있어서 이는 분만시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산모나 영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출산 위생에 관하여 무관심함에 관하여 일부 지적되었고, 대부분은 가족 계획 실행의 차원에서 본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식을 재산으로 보아 많을수록 좋다는 사고 방식의 문제, 본인은 가족 계획을 하고 싶으나 시부모들의 반대와 피임에 관한 남편의 무관심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임신 출산에 있어서 의학적 지식 보급에 의한 보건 의료화의 주력에서 1960-70년대에는 자의적(自意的) 출산 조절에 의한 출산 통제로 관심사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보육 주제 유목

보육 주제 유목내의 하위 영역 분포를 보면(〈표 1〉참조) 물리적 필요 충족이 382건(26.3%), 건강·위생 관리가 822건(56.7%), 정서적 보호가 125건(8.6%), 발육 일반이 122건(8.4%)으로, 건강·위생 관리가 가장 많이 기사화되어 있다. 시기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표 3〉참조) 보육 유목에서 나타난 1940-50년대의 특징은 전체 98건 중에서 건강·위생 관리가 53건(54.1%), 물리적 필요 충족 영역이 36건(36.7%)으로 이 두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1920-30년대에 전체 보육 관련 기사 894건 중에 건강·위생이 518건(57.9%), 물리적 필요 충족 216건(24.6%)으로 나타난 분포와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1960-70년대는 전체 459건 중에서 건강·위생 관리가 251건(54.7%), 물리적 필요 충족 영역이 130건(28.3%)으로 다른 두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두 영역이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920-30년대부터 보육주제 유목에서 계속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위 영역이 건강 위생 영역이고 그 다음이 물리적 필요 충족이다. 이는 보육에 있어서 건강 위생

의 관리와 충분한 영양 상태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문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두 영역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우선 우리 나라의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영아 사망률의 추이를 보면 1925-1930년에는 1,000명당 175명, 1935-1940년에는 153명, 1955-1960년에는 100명, 1965-1970년에는 69명, 1975-1980년에는 37명 으로 나타나고 있다(권태환·김두섭, 1990).

한편 분석 결과를 가족이 연약한 존재인 아동을 보호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대한 의식의 발달과 보건 위생 관념의 발달과의 관계가 근대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심성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아리에스의 주장에 근거해서 본다면, 신문 기사에서 아동 보육과 건강·위생을 밀접하게 연관짓는 것은 근대적 관념의 산물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육 유목에서 아동 양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940-50년대에서는 높은 소아의 사망률은 빈곤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어머니의 부주의와 아버지의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1920-30년대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합리적, 과학적 지식의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1960-70년대에서는 경제 성장률에 비해 모성사망, 영아사망률이 높은 것을 문제시하며, 이는 젖먹이를 키우는데서 식생활이 윗어른, 부모, 남편 다음으로 임부나 젖물리는 어머니 몫이 되는 풍조가 강하여 가족 구조 속에서 모성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유기의 유아에게 적합한 이유식이 없어서 단백질, 칼슘, 철분 등의 부족 등 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며, 동시에 예방 주사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1920-30년대나 1940-50년대에 지적된 바와 비슷하다. 그런데 1960-70년대에 들어 달리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모성의 취업이 증가한데 비해 자녀 양육을 뒷받침해 줄 사회 시설 부족하여 유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 이와 더불어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결과 아동

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 환경의 문제점, 일거리를 찾아 젊은 세대가 도시로 이주 정착하여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첫 아기 어머니들이 경험도 없고 육아 지식도 부족하여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달리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바와같은 핵가족이 아동 보육에 있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아동의 정신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는 가족 계획으로 자녀의 수가 줄어들어 따라 과잉 보호,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육 관련 기사에서 제시된 행위의 주체에 관한 빈도는 <표 4>와 같다. 보육 주제 유목내에서 1,042건이 분석되었고, 이 가운데 어머니가 669건(64.2%)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가 213건(20.4%)이고, 가정이 104건(10.0%), 부형과 아버지가 각각 6건(0.6%), 3건(0.3%)이다. 시기별로 보아도 세 시기 모두 어머니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이 부모, 가정의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보육 역할의 수행자로서 아버지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신문에서는 보육 역할이란 어머니가 담당해야 한다는 성별 분업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 주제 유목

교육 유목 내의 하위 영역 분포를 보면(<표 1> 참조), 신체 발달 39건(7.5%), 정서·사회적 발달 168건(32.4%), 지적 발달 141건(27.2%), 특수아 지도가 50건(9.7%), 놀이 지도 120건(23.2%)으로, 정서·사회적 발달에 관한 기사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1920-30년대와 마찬가지로 1940-50년대에 도 아동의 지적 발달과 정서·사회성 발달이 비슷한 정도로 다루어졌다(<표 3> 참조). 신문에서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부모들이 교과서 이외의 책은 사치로 알아 읽을 거리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아동이 읽을만한 잡지가 없음을 문제시하고 있다. 같은 입장에서 아이를 위해 먹을 것을 사주기는 하나 장난감을 사주려는 생각은 매우 회박하며, 또한 어린이들의 놀이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모들의 인식을 문

〈표 4〉 시기 구분에 따른 주제 유목별 행위 주제 빈도

주제	시기	가정	어머니	아버지	부모	부형	기타
보육	20-30년대(%)*	75(11.3)	443(67.0)	0(0.0)	103(15.6)	6(1.0)	34(5.1)
	40-50년대(%)*	10(15.6)	45(70.3)	0(0.0)	9(14.1)	0(0.0)	0(0.0)
	60-70년대(%)*	19(6.0)	181(57.10)	3(1.0)	101(31.9)	0(0.0)	13(4.1)
	계 1,042(%)**	04(10.0)	669(64.2)	3(0.3)	213(20.4)	6(0.6)	47(4.5)
교육	20-30년대(%)*	27(15.4)	67(38.2)	0(0.0)	65(37.1)	9(5.1)	7(4.0)
	40-50년대(%)*	5(11.9)	17(40.5)	0(0.0)	15(35.7)	4(9.5)	1(2.4)
	60-70년대(%)*	8(4.5)	59(33.0)	2(1.1)	94(52.5)	2(1.1)	14(7.8)
	계 396(%)**	40(10.1)	143(36.1)	2(0.5)	174(43.9)	15(3.8)	22(5.6)
훈육	20-30년대(%)*	28(13.1)	76(35.7)	0(0.0)	88(41.3)	12(5.6)	9(4.2)
	40-50년대(%)*	4(15.4)	5(19.2)	4(15.4)	13(50.0)	0(0.0)	0(0.0)
	60-70년대(%)*	13(10.7)	30(24.8)	0(0.0)	64(52.9)	5(4.1)	9(7.4)
	계 360(%)**	45(12.5)	111(30.8)	4(1.1)	165(45.8)	17(4.7)	18(5.0)
상담	20-30년대(%)*	1(2.5)	18(45.0)	0(0.0)	15(37.5)	5(12.5)	1(2.5)
	40-50년대(%)*	1(14.3)	1(14.3)	0(0.0)	5(71.5)	0(0.0)	0(0.0)
	60-70년대(%)*	0(0.0)	2(13.3)	0(0.0)	12(80.0)	1(6.7)	0(0.0)
	계 62(%)**	2(3.2)	21(33.9)	0(0.0)	32(51.6)	6(9.7)	1(1.6)
사회 연계	20-30년대(%)*	79(27.3)	71(24.6)	1(0.2)	79(27.3)	57(19.7)	2(1.0)
	40-50년대(%)*	6(13.0)	27(58.7)	0(0.0)	7(15.2)	6(13.0)	0(0.0)
	60-70년대(%)*	22(8.5)	64(24.7)	0(0.0)	124(47.9)	31(12.0)	18(7.0)
	계 594(%)**	107(18.0)	162(27.3)	1(0.2)	210(35.4)	94(15.8)	20(3.4)
일반	20-30년대(%)*	7(10.4)	20(29.9)	1(1.5)	29(43.3)	2(3.0)	8(11.9)
	40-50년대(%)*	2(12.5)	5(31.3)	0(0.0)	5(31.3)	2(12.5)	2(12.5)
	60-70년대(%)*	8(12.5)	11(17.2)	1(1.6)	33(51.6)	0(0.0)	11(17.2)
	계 147(%)**	17(11.6)	36(24.5)	2(1.4)	67(45.6)	4(2.7)	21(14.3)

* 주제 유목내에서 시기별 각 행위주체유목의 백분율

** 주제유목내에서 각 행위주체의 백분율

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1960-70년대에서는 정서·사회성 발달이 75건인데 이는 전체의 33.6%로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은 지적 발달(26.0%)과 놀이 지도(23.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서·사회성 발달에서는 주부도 취업을 한 맞벌이 가족에서의 자녀 발달, 특히 성격이나 정서 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자녀 교육의 방법을 기사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앞선 두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지적이다. 또한 1960-70년대에 지적 발달 하위 영역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아동 도서에 관한 기사이다.

그런데 1940-50년대에 아동 도서의 부재를 문제시하던 내용과는 반대로, 대량 생산으로 쏟아지는 아동 도서에 대응하여 올바른 책 선택과 읽기 지도가 중요한 관심사로 바뀌어가는 변화가 나타난다.

전 시기에 걸쳐서 교육 유목은 사회 제도연계 유목, 특히 학교와의 연계 영역에 비해서 적은 빈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직접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 보다는 자녀의 교육 기능이 사회로 이양되어 부모는 이에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 양육에 있어서 신체, 인지, 정서의 발달을 꾀하는

교육의 기능은 사회의 형식적 제도 부문으로 사회화 되고 가정이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보육이 강조되는 가정의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총체적인 가족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 과정이었으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자녀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학교가 등장하여 더 이상 가족이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을 전담하는 제도가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문소정, 1991). 본 분석 결과는 바로 이러한 변화과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 역할의 행위 주체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표 4〉 참조), 교육주제유목 중 분석된 총 396 중에서 부모가 174건(43.9%)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143건(36.1%), 가정이 40건(10.1%), 부형과 아버지가 각각 15건(3.8%), 2건(0.5%)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1920-30년대와 1940-50년대는 어머니, 부모, 가정 순으로 나타났으나, 1960-70년대에는 어머니보다는 부모가 더 많이 언급이 되었다. 또한 아버지나 부형이 언급된 경우는 가장 적은 빈도로 나타났다. 교육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 대상으로 부모를 지목하고 있어 보육 역할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자녀의 교육과 훈육의 궁극적인 책임과 감독이 부친에게 있다(유안진, 1990)는 점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4) 훈육 주제 유목

훈육 주제 유목내의 하위 영역 분포를 보면(〈표 1〉 참조), 기본 생활 습관형성이 140건(37.5%), 사회 규범 내면화가 150건(37.5%), 훈육방법이 104건(26.0%)으로 기본생활 습관형성과 사회규범 내면화 영역이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1920-30년대에 비해서 1940-50년대에는 훈육 주제가 다른 주제 유목에 비해 적은 수로 다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27건 중에서 사회 규범 내면화에 관한 훈육 영역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불량화, 범죄에 관한 기사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 기간이 사회체제의 급변, 기존 가치붕괴, 공산주

의자의 사보타주, GNP 100달러 미만의 경제적 빈곤의 특징으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였다(전병재, 1980)는 사회 상황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58건으로서 훈육 유목 중에 41.9%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그 다음이 사회 규범 내면화로 45건(33.1), 훈육 방법이 33건(24.3)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대소변 가리기, 식습관, 자조적 생활 습관, 절약, 예절, 시간에 관한 규칙적 생활 등이며 이들 가운데 절약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훈육의 방법 영역에서는 훈육에 있어서 억압적 방법보다는 자녀에 대한 이해, 공감,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등의 방법을 강조하는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선 두 시기와는 달리 강화원리에 근거한 행동 수정 방법이 비롯되기 이전의 이상적인 방법으로서 소개되고 있다.

정직, 근면, 검약, 저축, 청결, 위생은 근대적 도덕 관념들(유봉호, 1982; 강순원, 1990, 재인용)로서 이러한 가치가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훈육주제유목에서 강조되는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1960-70년대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입각한 산업 사회 구조로의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산업 윤리 내지 가치 신념 체계가 요청되었다. 이에 신문 기사로 자조적 생활 습관, 시간에 관한 규칙적 생활, 절약, 저축 등의 생활 습관 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소년 비행, 탈선이 사회적 규범 내면화 하위 영역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 역시 산업 사회 특성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사회 이전에는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습득하는 것이 상당히 일찍부터 행해졌는데, 테크놀로지가 단순하고 별로 변화하지 않아 별다른 훈련이나 교육 없이도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습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은 8세부터 10대 중반 전의 이른 시기에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 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가 복잡해지고 분업화가 크게 진행됨에 따라 잘 교육 받고 훈련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훈련과 교육 기간이 산업 사회 이전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어 이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를 허용하는 연령이 늦추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과 훈련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 시장 참여 연령이 늦추어짐에 따라 육체적으로는 성숙하였으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는 성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집단이 확대되고 청소년기는 점점 더 연장되어 청소년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게 되었다(도종수, 1991)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문에 지적된 아동 양육의 문제점을 시기별로 살펴 보면 1920-30년대에는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너무 엄격하며 아동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가정에서 특히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뜻과 맘을 다주고 지나치게 애호하여 너무 모든 것을 다해 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자녀를 사유물, 양로 보험과 같이 생각하며, 이는 부모 중심으로 아동을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조선 가정의 또다른 문제로 가족이 대가족이어서 일관된 자녀 교육이 어렵다 하여 대가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940-50년대에는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를 가정 내에서 찾아, 남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부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냉전 등의 대가족 제도의 모순, 어른 중심적 태도, 경제적 빈곤 등을 지적하고 있다. 1960-70년대의 문제점으로는 공부만 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 배금주의적 경제 생활 태도 등 부모가 갖고 있는 태도의 문제와, 핵가족화 되면서 확대 가족이 수행하던 가정 교육 기능이 약화되었고 이는 자녀에 대한 방임 아니면 지나친 간섭으로 나타났고, 미국 문화, 가치 유입에서의 불균형 등이 청소년의 탈선 비행,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기사에서 지적되고 있다.

훈육 역할의 주제로서 언급된 순위를 보면(〈표 4〉 참조), 분석한 360건 중에서 165건(45.8%)이 부모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어머니가 111건(30.8%), 가정이 45건(12.5%), 부형과 아버지가 각각 17건(4.7%), 4건(1.1%)으로 부모, 어머니, 가정의 순서이며 이러한 경향은 전 시기에 걸쳐서 같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에서 어머니가 가장 높게 지적된 바와

는 다른 결과로서 나타난 양상이 교육과 비슷하다.

5) 상담 주제 유목

상담 주제 유목내 하위 영역의 분포를 보면(〈표 1〉 참조), 사춘기 변화 적응이 21건(30.9%), 이성교제가 17건(25.0%), 진로가 30건(44.1%)건으로 진로 영역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상담 유목에 나타난 특징은 다른 유목들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기별로 보면 1920-30년대와는 다르게 1940-50년대와 1960-70년대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사춘기 변화 적응 상담이 다른 두 하위 영역에 비해 많이 다루어졌다. 1920-30년대에 진로 상담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이후 시기에서는 진로 영역이 소수 다루어지는 것은 노동참여연령이 늦추어지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시기에 걸쳐 상담 유목은 다른 유목에 비하여 기사 건수가 적다. 이는 유아나 아동기에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가정을 넘어 학교, 사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아나 아동기에 비해 가정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역할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아동기와 성인기 중 어느 한쪽으로 소속되지 않은 주변인적 상황에 속하는 연령 시기상의 특징때문으로 보여진다.

상담 역할 수행자로 언급된 빈도를 보면(〈표 4〉 참조), 분석된 62건 중에서 32건(51.6%)가 부모로 제시하고 있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21건(33.9%), 부형이 6건(9.7%), 가정이 2건(3.2%)으로 부모, 어머니, 부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1920-30년대에는 어머니, 부모, 부형의 순이고, 1940-50년대에는 부모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1960-70년대에도 역시 부모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6) 사회연계 주제 유목

사회연계 유목내의 하위 영역 분포를 보면(〈표 1〉 참조), 학교연계가 557건(79.9%), 취학전 교육연계가 71건(10.2%), 대중매체연계가 69건(9.9%)으로, 학교연계가 월등히 높게 기사화되고 있다. 이 주제 유목

은 연구(I)에서는 학교제도연계 유목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제도연계 유목을 입학, 가정내지도, 가정학교연계, 기타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본 결과 <표5>과 같다.

1920-30년대에는 입학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많이 다루어졌다. 1940-50년대에는 입학 영역과 가정내 생활 지도 영역에 관한 기사가 비슷한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입학 영역에서는 국민 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에 대한 준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입학 시험을 치를 수험생에 관한 내용이다. 가정내 지도는 주로 방학 생활에 관한 기사이다.

1960-70년대에는 앞선 두 시기와는 달리 가정내 생활 지도 영역에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루어진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1920-30년대나 1940-50년대와 비슷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어 방학 동안의 생활 지도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960-70년대에서는 가정내 지도에서 방학동안의 생활 지도에 못지 않게 방과후 과외 공부등의 학습지도에 관한 기사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1920-30년대에서는 입학 영역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1940-50년대에서는 두 영역이 비슷하게 다루어지다가 1960-70년대에서는 가정내 지도 영역이 월등히 많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공교육 제도가 점차로 한국 사회내에 정착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던 교육이 공교육의 형태를 띠면서 대중에게 보급된 것은 자본주의의 발흥과 더불어서라고 본다. 즉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운동 논리로 하는 자본 주의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계급 관계의 모순을 완화시키고,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사회적 평형 장치로 개발된 것이 사회 공교육제(강순원, 1990)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공교육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 이행 과정의 특성과 궤적을 함께하면서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사회에서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주적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추진된 이 근대 학교 설립은 일제식민지화로 근대 시민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좌절되고, 이로 인하여 공교육제도가 봉건적 교육 제도의 청산위에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화 교육에 의해서 정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민족 교육 세력을 말살하고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는 학교 제도를 사회적 지위 획득의 통로로 만듦으로써 한국인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즉, 학교를 제외한 다른 사회적 지위 획득 통로를 폐쇄함으로써 학교를 통하지 않고는 사회에의 진출이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식민지 통치에 동조할만한 사람을 선발하는 한편 일단 선발한 사람에게는 철저한 길들이기 교육을 주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제도외(制度外), 즉 학교의 교육은 강력히 제한하고 야학이나 서당에서 받은 교육은 학력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 달리 표현하자면 서당이나 야학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도 그의 학력은 무학(無學)이었다(김신일, 1985). 일제는 구체제가 식민지로 해체된 새로운 틀 속에서 식민지 교육이

<표5> 학교연계영역의 세부 분포

	입학	가정내지도	가정학교연계	기타
1920-30년대	152(54.1)	104(37.0)	14(5.0)	11(3.9)
1940-50년대	20(44.4)	21(46.7)	4(8.9)	0(0.0)
1960-70년대	235(42.2)	275(49.4)	31(5.6)	16(2.9)

갖는 사회, 경제적 효과로서 식민지 관료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점으로 식민지 교육에 대한 조선인들의 거부감을 점차 상쇄시켜 나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20-30년대의 신문 기사에서 학교 입학 및 입학 후 적응에 관한 내용이 다수 나타나는 것은 일면으로는 공교육이 자리잡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나, 또 한편으로는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볼 때 식민지 교육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이 추진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한 학교 교육이라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교육을 통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요구되는 인간의 행동 특성을 개발하고 발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김진균·홍승희, 1991). 즉 국제적 경쟁력이 낮은 한국의 수출 업체들은 한국의 국제 경쟁력의 비교 우위를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에 두었기 때문에 일반적 기술·교양을 갖춘 노동력의 대량 배출을 교육계에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국가 주도의 중등 교육의 확대는 필연적이었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중등 교육의 평준화는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공업화가 요구하는 일반 교양을 갖춘, 중등 교육을 이수한 노동력을 조달해 준 것이다(강순원, 1990). 이와 같은 자본의 노동력 창출 요구에 맞춰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과잉경쟁과 노동력 차별화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 경쟁이라는 신화 속에서 치열한 입시 경쟁이 조장되고 그 결과 신문에서 방과후 과외 공부에 관한 기사가 다수 나타나게 되었고, 학교 연계 역할 중에 가정내 학습지도 내용이 월등히 많아지게 된 까닭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근대적 학교 교육 제도는 자본화와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변화해왔고, 신문 기사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한편, 취학전 교육에 관한 영역에서 특징적인 것은 앞선 두 시기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탁아소의 문제가 1960-70년대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이 사회로 동원되어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다.

대중 매체 연계는 1920-30년대나 1940-50년대에 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다가 1960-70년대에 이르러 기사화되고 있다. 1940-50년대에서 다루어진 기사는 아동들이 읽을만한 잡지가 없을 정도인 아동 문화에 대한 관심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는데 반해서, 1960-70년대에는 라디오, T.V, 잡지, 만화 등의 대중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기사화하고 있다. 즉, 이들 대중 매체는 교육적, 계몽적 효과가 없이 흥미, 오락 위주이어서 아동의 사고를 획일화하고, 정서를 해치고 있어 아동을 위한 내용을 선정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1960-70년대에 대중 매체의 기사가 증가하는 변화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교통, 통신 시설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신문 및 라디오의 보급률은 극히 저조하였으며, 1961년도를 계기로 차츰 변동의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1962년에는 라디오, TV의 보급율이 일천명대 각각 50,1.2에서 1970년에는 각각 126,13으로, 1975년에는 383,53으로 변화하였다(추광영, 1986). 이처럼 대중매체의 보급 증가 현상이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사회 연계 역할에서 언급된 행위 주체의 분포를 보면(〈표 4〉 참조), 분석된 594건 중에서 부모가 210건(35.4%)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162건(27.3%), 가정이 107건(18.0%), 부형과 아버지가 각각 94건(15.8%), 1건(0.2%)이다. 시기별로는 1920-30년대는 부모, 가정, 어머니의 순서이나 빈도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1940-50년대는 어머니, 부모, 부형의 순서로 나타나고, 1960-70년대는 부모, 어머니, 가정의 순서이나 부모의 빈도가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부형에 대한 지칭이 다른 역할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7) 일반 주제 유목

1920-30년대의 일반 주제 유목으로 분류된 기사는 모두 68건이다. 이들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당시 자녀 양육의 문제점은 유교 정신을 지켜 선조(先祖)나

부(父老)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예의나 도덕을 구비하였으나 아동을 위해서는 조금도 생각함이 없다는 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모두 아동보다는 부모나 성인이 중심이 된다는 점, 아동을 어른의 부속물 정도로 알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음식, 의복, 거처, 행동에 주의할 줄 모른다는 점 등으로 모든 면이 어른 중심이며 아동 문제에 관하여는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1940-50년대에 일반 주제 유목으로 분류된 기사는 모두 18건이다. 이들 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은 강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동을 무시, 냉대하는데, 즉 자녀를 부모의 소유 대상으로 여겨 부모의 기대대로만 키우려하고, 맹목적으로 잘 해주지만 아이의 개성이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을 위한 시설이나 시책이 거의 없어 아동 복지의 측면이 빈약한 실정을 문제점으로 거론하기도 하였다.

1960-70년대에 일반 주제 유목으로 분류된 기사는 모두 84건이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의 위험한 환경, 아동을 위한 복지 시설 빈곤, 놀이터 부재, 상업화로 오염된 대중 매체, 불신과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그대로 아동이 방임되어 있는 아동환경문제가 기사화되고 있다. 자녀가 부모의 분신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이것은 출세주의 교육관으로 나타나 아동의 학습에 극성스러운 뒷바라지를 하며 과잉 보호, 맹목적 사랑, 과잉 기대 등 감정적으로 대하며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익애의 모습이 지나친 반면에 그밖의 생활에 대해서는 방임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개인 주의 사상의 침투로 자식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퍼지고 있으며, 기혼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의 문제 등도 다루어졌으며, 가계 계승, 노후 안정으로 자녀 가치를 생각하고, 남아 선호가 지배적이라는 자녀관에 관한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다.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로서 해야할 일을 미루거나 이양해버림으로 인해 부권이 약화된 현실 등 아버지 역할에 관한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1960-70년대에 그 이전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성 역할 부재, 취업으로 인한 모성 역할 문제가 기사화되어 나타난다.

일반 주제 유목에서 행위 주체로 언급된 빈도의 분포를 보면(〈표 4〉 참조), 분석된 147건 중에서 부모가 67건(45.6%)으로 가장 많고, 어머니가 36건(24.5%), 가정이 17건(11.6%), 부형과 아버지가 각각 4건(2.7%), 2건(1.4%)이다. 시기별로 보면 1920-30년대는 부모와 어머니가 비슷하게 나타나나 1960-70년대는 부모가 어머니보다 나타난 빈도가 훨씬 많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아동 양육에 나타난 변화 과정의 일면을 규명해 보고자 사회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동아·조선일보의 아동 양육 관련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은 기사가 담고 있는 내용의 주제와 행위자 분석의 두 측면에서 실시하였고,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양육에 관한 기사 내용은 임신·출산, 보육, 교육, 훈육, 상담, 사회 연계에 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아동의 건강·위생 관리와 물리적 필요 충족의 보육과 학교 연계에 관한 내용을 아동 양육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 변화와 아동 양육, 학교와의 연관을 설명한 사회역사적 견해(Aries, 1963; Hunt, 1970; Kessen, 197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신문은 아동 양육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자로 어머니를 제시하고 있어 성별 분업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보육 역할에서 강하다. 그러나 시기별로 볼 때 1960-70년대에 들어서는 아동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머니만의 일이 아닌 부모의 일로써 제시되는 변화를 보인다.

셋째, 각 주제별로 내용의 변화를 보면 임신 출산에 있어서는 1920-30년대와 1940-50년대는 의학적 지식 보급에 의한 보건 의료화에 주력하다가 1960-70년대는 출산 통계를 중요한 관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보육은 아동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영역으로서 특히 건강·위생 관리와 물리적 필요 충족이 강조되며, 이러한 경향은 전 시기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학교 교육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정내의 교육 역할은 약화되어 나타나며, 지적 발달보다는 정서 사회적 발달에 관한 교육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60-70년대로 내려올수록 강화된다. 훈육에서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사회 규범 내면화의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이러한 경향은 전 시기에 걸쳐서 나타난다.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서는 정직, 근면, 검약, 저축, 청결, 위생, 시간 관념 등 근대 산업 사회의 가치 덕목들이 나타나고, 사회 규범 내면화에서는 청소년 비행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이는 노동 참여 연령이 늦추어짐에 따른 청소년기 연장이 갖는 산업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상담은 다른 내용에 비해서 소수 다루어지며, 1920-30년대는 진로 상담에 관한 내용이 많다가 그 이후로 내려오면서 사춘기 변화 적응에 관한 내용이 많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훈육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술이 복잡화 분업화 되고 이에 따른 교육 훈련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점차로 진로 문제보다는 주변인적 상황에 놓인 청소년기에 적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연계를 특히 학교 연계가 아동 양육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 전개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공교육 제도가 확립되는 사회 변화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대중 매체가 아동 양육과 관련이 되는 것은 1960-70년대로 이는 산업화에 따른 교통 통신 시설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내재, 신문은 아동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아동을 자신들의 소유 대상으로 봄으로써 야기되는 과잉 애착, 과잉 보호, 과잉 기대 등을 전 기간에 걸쳐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1920-30년대나 1940-50년대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서 대가족 형태의 부적합성이 거론된 반면, 1960-70년대는 핵가족의 부적합

성이 지적되고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간은 피동적이고 강압적이거나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전개되었다고 보는 1920-30년대에서 급속한 산업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1960-70년대까지로서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발행된 신문에 실린 아동 양육의 내용은 사회 역사적 관점에서 제시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 변화에 따른 아동 양육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화와 아동 양육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아동 연구는 대부분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의 틀로 사회 역사적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역사적 상황이 아동 양육에 갖는 영향력을 정밀하게 논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역사상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 현실을 보다 명료하게 반영하는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는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연구 대상 기간 동안의 신문 기사 자체가 얼마 만큼이나 당시의 사회 현실을 명료하고도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추후로 보다 광범위하고도 심도있는 기초 자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1) 강순원(1990), 한국교육의 정치경제학, 서울: 한길사.
- 2) 공세권의 4인(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3) 권태환·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4) 김경동·이은죽(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5) 김광웅·박용치(1978), 인구문제의 정치 행정적 의미, 이해영·권태환편, 한국사회인구와 발전4권, 서울: 서울대인구발전연구소.

- 6) 김숙현(1973), 한국신문에 실린 여성에 관한 기사분석연구-1920년대와 196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신일(1985), 민족교육의 역사와 현실, 한국사회연구 3권, 서울 : 한길사.
- 8) 김진균·홍승희(1991) 한국사회 교육과 지배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지식사회학적 이해-, 서울 : 녹두.
- 9) 도중수(1991), 청소년문제,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10) 문소정(1991), 일제하 한국농민가족에 관한 연구-1920-30년대 빈농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박명선·신경아(1991), 이데올로기적 통제-가족과 성-,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지식사회학적 이해-, 서울 : 녹두.
- 12) 박현채(1985), 한국자본주의 전개와 제 단계와 그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의 재인식, 서울 : 한울.
- 13) 사회과학연구소 편(1986), 한국사회의 변동,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14) 신용하(1967), 일제식민지 통치기의 시대구분문제, 창작과 비평, 2권, pp. 484-496.
- 15) 신용하(1981), 한국사회의 대상과 이론의 문제, 한국학보, 25권, pp2-24.
- 16) 신영숙(1989), 일제하 한국여성사회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7) 유안진(199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18) 유안진(1992), 아동양육, 서울 : 문음사.
- 19) 유재천(1990), 한국 언론과 이데올로기,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20) 이기백(1976), 한국사의 시대구분문제, 한국경제사학회 편, 한국사 시대구분론, 서울 : 을유문화사.
- 21) 이시재(1988), 필립 아리에스의 심성사 연구, 한국사회사 연구회 편,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방법,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Vol 10,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22) 이재천(1987), 한국신문의 문화적 기능변천에 관한 연구-1920년부터 1984년까지의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3) 전병재(1980), 70년대의 사회문제와 일탈, 한국사회학회편, 70년대 한국사회, 서울 : 평민사.
- 24) 정보석(1990), 한국언론사, 서울 : 나남.
- 25) 조기준의 3인(1982),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서울 : 현음사.
- 26) 조용만의 2인(1982),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서울 : 현음사.
- 27) 조항제(1991), 한국의 대중문화와 문화제국주의, 장상환·김의동 편,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 한울.
- 28) 차배근(1991), 커뮤니케이션학개론, 서울 : 세영사.
- 29) 차배근(1992),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 : 세영사.
- 30) 한기연의 3인(1982), 일제의 문화침략사, 서울 : 현암사.
- 31) Bigner, J. J. (1979), Parent-child relations-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Y. : Macmillan publishing, Inc.
- 32) Conner, R., T.B.Johannis(1954), Intra-familial conception of good father, good mother and good child, J. of Home Economics, Vol 46, pp. 187-191.
- 33) Gilbert, L.A. & G.R.Hanson(1983),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J.M.F., Vol 45, pp. 203-212.
- 34) Goodnow J.(1981), Everyday ideas about cognitive development, J.P.Forgas, ed., in Social cognition, London : Academic press Inc.
- 35) Kessen W.(1979), The American child and other cultural in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 34, pp. 815-820.
- 36) Nye F.I.(1976),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London : Sage publication.